눈이 망한 면접관

(눅6:39-45)

39.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3.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눈이 망한 면접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인 39절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헤아리는 것, 이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이러한 비판과 헤아림과 정죄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적용될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평지설교

는 윤리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윤리, 행동 행위한다는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보다 더 먼저 있는 존재의 차원에서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존재의 차원이라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지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죄도 더 근원적으로 원죄 차원에서 이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참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속적으로 그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장소로 돌아가서 생각해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수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원수 사랑이라고 할 때의 원수는 사람의 원수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흔히 사람들 가운데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람은 절대로 그가 누구이든지 나의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바로 행한 것이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원수사랑은 아담이 한 것이에요.
원수는 사탄마귀에요.
그 사탄마귀에게 신뢰를 주고 그 말에 동조하고 사탄마귀와 동행하면서 원수사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절대로 원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로 삼는 일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또 무엇이냐 하면, 위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보는 위치, view point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비춰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면접관 앞에 있는 입사지원자들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면접관이시고 나와 내 이웃들은 다 입사지원자들입니다.
내가 나와 만나는 사람을 마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라도 내 마음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자고 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라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마음으로 정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볼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있고, 정죄하게 되어있고, 그 사람을 헤아리게 돼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반드시 헤아리게 돼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죄가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비판의 내용, 우리가 헤아리는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면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모든 내용이 다 틀리다는 얘기를 맹인이라는 말로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면접 장소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원죄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면접 장소에서 입사지원자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다른 입사지원자들의 줄을 떠나서 면접관 옆에 앉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면접관이신데, 그 하나님 옆에 앉아서 동등한 자격으로 나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면접하고 있는 것이고, 나와 만나지는 모든 상황들을 면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상황까지도.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고,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죄를 고려할 때 내게 경제를 풍성하게 허락할 때 생길 수 있는 범죄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앞뒤로 다 재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상황인데, 내가 똑같이 면접관의 자리에 서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면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의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이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면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면접관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모든 판단과 헤아림이 다 거짓이고, 다 잘못되었고, 다 오해일 뿐이다.
왜냐?
근본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비유로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비유라는 것은 이 맹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맹인은 육체적으로 시각의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라도 주님께서 가리키신 맹인이 아닐 수 있고, 시력이 멀쩡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가리키신 맹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각장애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시각장애 상태를 비유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라는 것은 주님이 들고 가리키시는 볼펜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盲)자라는 한자를 가만히 보면 망할 망(亡)자 밑에 눈 목(目)자가 있습니다.
눈 위에 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이 망한 자가 맹인입니다.
면접관의 자리에 서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면접관이 돼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면접하고 내 인생을 내가 면접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면접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주어지는 사건을 내가 면접하고 있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누구냐 하면 눈이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경이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는 면접관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는 내 눈이 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접관의 자리에 서도록 유혹한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니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엇을 봐도, 누구를 만나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지 판단이 안서요.
그래서 아담은 오직 하와를 만날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와 앞에서 하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로 네 뼈로 만든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네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너를 돕는 배필로 내가 만든 것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해주실 때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표정 속에 나타난 하와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직접 보면서 기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와에 대해서 아담은 눈이 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와를 봅니다.
벗고 있습니다, 또 하와가 아담을 보니까 벗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옷으로 가리게 됩니다.
이제 돈이 보입니다, 건강이 보입니다, 일류대학이 보입니다, 모든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안 보입니다.
이 상태를 맹인(盲人), 눈이 망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만 보였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면접관이셔서 같이 입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든 동료들은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이 세상이 안 보이고 세상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을 내게 가르쳐주셨고, 나는 그 지식을 따라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내가 면접관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헤아리고 내가 만나는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고 있지만, 어느 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눈이 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원수입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눈이 망한 상태라고 보는데, 마귀는 그 눈이 망한 상태를 눈이 밝아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쌓는 게 뭐고, 선을 쌓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악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보기만 하면 악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신하들이 전쟁기간이라서 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혼자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자를 취하고 남편 우리야를 천인공노할 패륜적 계획을 세워서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을 때, 사무엘하 11장 27절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면접관으로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밧세바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을 갖고 싶어 했고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히 악했습니다.

자, 쌓은 악이 뭡니까?
밧세바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 지적을 받고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네게 주었는데, 만약 이것들이 다 모자랐다고 한다면, 이것저것을 내가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죽이면서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왜 이런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까?
보았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다윗은 왕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의 집을 갖고 싶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토록 마음으로 찾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한시도 없으면 안 됐던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도 이 순간에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뒤에 수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것처럼 외면한 겁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으므로 특별히 그 죄만 꼬집어서 얘기할 때 우리보다 더 악합니까?
여러분, 돈을 갖고 싶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밧세바를 갖고 싶은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돈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원수마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눈이 밝아져서 돈을 보게 됩니다.
돈을 보면서 돈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돈을 갖고 싶어 하고 돈을 벌겠다고 나가서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죄를 쌓는 것이고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 뭡니까? 인생의 미래를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교회가 설교강단에서 악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왕이 될 것을 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원수마귀가 하는 말을 목사님들이 입으로 그대로 담아내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주인, 사울왕의 집을 사울왕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었습니다.
비전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때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 종교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던 그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것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만을 정면으로 봐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암흑 속에 가려져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암흑 속에 가려질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맹, 아내에 대해서 맹인입니다.
남맹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맹입니다, 자녀를 보기는 보지만 컴맹과 같이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맹입니다, 직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직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접관의 자리에 서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상황, 사건들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 눈이 망한 자가 망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면접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면접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입사지원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때 면접관이 나를 보고 환히 웃으면, '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옆의 친구 면접할 때 인상을 찡그리면 '아, 면접관의 얼굴을 보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뭔가 잘못 되었구나!'
면접관의 얼굴을 볼 때.

눈이 망한 면접관의 자리, 눈이 망해서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이거늘'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만이 밝히 보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것은 극장 안에서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에게만 조명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리고 주위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십자가만 밝히 보일 때에 하나님이 밝히 보이고, 하나님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라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면접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사건들을 면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이 망한 자입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면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입사지원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면접관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내가 나에 대해서 나와 만나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